

# 교육지원청 지원 역할 강화한다

## 도교육청, '학교업무 최적화 TF팀'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육감 공약사업인 '학교업무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18일 '학교업무 지원 방안 마련 TF팀 1차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최적화 방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17년 교육정책 만족도 결과 교직원 학교업무 최적화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에 평균 7.2점으로 체감도가 낮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학교업무 지원방안 마련 TF팀 1차 협의회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허브(hub)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업무를 교육지원청

으로 이관해 학교업무 경감을 현실화시킬 예정이다.

무엇보다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효과가 있는 이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추진 단계별 방안을 살펴보면 올 10월까지 TF팀 구성 후 갈등업무·효율성 증진업무·학교 부담업무 등 이관업무를 발굴하고 발굴된 이관업무를 선별하여 2019년 1월부터 시범

교육지원청을 선정·운영한다. 이후 2019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추진 방향을 설정한 뒤 2020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을 추진하여 교직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을 이루는 한편 학교가 학생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17일 오후 부안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김승환 교육감, 사회복지시설 방문

### 부안장애인복지관 방문... 위문품 전달·관계자 격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7일 오후 부안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18일에는 남원시 노인 복지관 등을 방문했다.

도교육청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우리사회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11일부터 2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32곳을 방문해 약 1,600여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을

을 전달한다.

도교육청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용기를 주고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지역과 공감하는 한국적 캠퍼스 중심 '위용'

### 전북대, 분수대 자리 한옥형 건지광장·대로 준공

### 전주 최초 백제 건축기법 적용... 대학-지역 만남 장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의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사업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교 70주년 기념광장과 기념대로 공사를 모두 마치고 18일 오후 4시 준공식을 가졌다.

옛 분수대 자리에 국비 등 53억 원이 투입돼 9개월 여의 공사 끝에 완공된 기념광장은 1만2,000㎡ 규모에 전통 누각과 지당, 병풍 조형물, 청운정, 원형수반, 화계형 테라스, 휴게장소 등이 설치됐다. 전북대는 이곳을 하늘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건지광장(乾止廣場)'이라 이름 붙였다.

'문화루(文會樓)'라는 이름이 붙은 전통 누각은 특히 천년고도 전주에서도 유일한 백제 건축 양식인 '하양식(下陽式) 기법'을 적용한 최초의 한옥투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법은 곡선을 그리며 날개처럼 쭉

뻗어가는 처마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전통 한옥의 기법 중 하나다. 또한 신정문에서 건지광장까지 이르는 길을 '건지대로(乾止大路)'로 명명했다. 이곳에는 그간 전통형 한옥에 들어갈 기와나 조경을 위한 나무 등을 기부 받는 '한와·한수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나무가 식재됐고, 기부자들의 이름을 수목에 붙여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했다.

건지광장은 대학이 소통하고 지역민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심분 살리기 위해 공간과 동선 체계 등이 고려돼 조성됐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상징성에 맞게 대학 전체가 하나로 모이고, 지역과 소통하는 공간인 대학의 중심을 전통 한옥형으로 변화시키면서 전북대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북대는 기념누각 테이프 컷팅식과 함께 이곳 건지광장에 개교 70주년을 기념한 타임캡슐을 묻는 봉헌식을 열었다. 이 타임캡슐에는 현재 전북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



전북대 건지광장 야경사진.

는 다양한 물건과 문서 등이 봉헌되고, 이는 30년 후인 개교 100주년에 다시 세상에 나온다.

이남호 총장은 "이 사업은 수많은 대학 중 그저 그런 'One of them'이 아니라 우리 전북대만의 색깔을 분명히 하기 위한 'Only one' 사업"이라며 "건지광장이 대학과 지역 발전의 에너지를 무한하게 생산하는 창조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어울림·원도심학교 중간관리자 워크숍'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8일부터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현민)와 함께 어울림·원도심 학교 중간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익산과 김제, 완주, 정읍, 순창, 장수, 진안, 임실 등 농어촌마을 일대에서 진행되며 농어촌마을의 자립(사람, 지형, 역사)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과 소통을 통해 농어촌 마을이 활성화 되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 중간관리자인 교감, 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1박2일 워크숍을 9월 18일부터 5회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어울림·원도심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소속 마을 중간 조직인 마을 연구원들과 학교 중간관리자 대면의 장을 마련해 학교와 마을이 소통과 협

력의 공감대를 형성, 학교 운영의 리더십을 제고하여 향후 상시적 정보공유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지속된 권역별 협의체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18~19일은 익산·김제 마을 일대, 20~21일은 완주 마을 일대, 10월1~2일은 김제·정읍·순창 마을 일대, 16~17일은 장수·진안 마을 일대, 18~19일은 임실 마을 일대의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탐방하며 무주, 고창, 부안 마을은 내년도에 탐방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어울림·원도심학교는 최근 학생 수가 늘면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제공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학교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교 중간관리자들이 농촌마을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어울림·원도심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3차 남북정상회담도 학교서 시청 권고

전북교육청은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학교에서 생중계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평화공존, 통일공감의 평화통일교육에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생방송 시청은 학급별, 학년별 또는 전교생 시청 등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교무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때도 각급 학교에서 자유롭게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군산대 광병선 총장,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이 지난 17일 군산대학교 분부 앞 광장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광병선 총장은 지난 12일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한 김영진 군산의료원장의 자폭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고 이날 행사에는 광병선 총장에게 다음 도전자로 자폭받은 군산대학교 이성이 학생처장이 동참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인 루게릭병에 대한 관

심을 환기시키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이어서 도전을 받은 세 사람을 지목해야 하고 도전 받은 후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100달러를 미국 루게릭 협회(ALS)에 기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병선 총장은 소정의 기부금을 후원해 박승일 농구선수를 기념해 만든 루게릭 환우들을 위한 국내 비영리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에 전달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축! 전주매일 창간

# 떠나자

맑은 물과 푸른숲이 있는 순창 강천산으로...

강천산 계곡

강천산 병풍폭포

메타세쿼이아길

장군목

순창이 참 좋다

제3회 순창장류축제

2018. 10. 19일 ~ 21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